

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고, 예산을 증액 투자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5.(화) 한국경제, “AI 전환 시대, 20대 때 배운 기술로 버티는 한국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‘26년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2조 8,482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(추경포함), 이는 ’25년 2조 7,332억원에 비해 1,150억원(+4.2%) 증가한 것입니다.

- 이러한 노력에 따라 ‘26.7월 기준 직업훈련 지원인원은 199만명으로 전년 동기 187만명 대비 +6.4% 증가하였습니다.

- 아울러 ’27년 정부 예산안도 올해 2조 8,482억원 보다 증액된 3조 2,47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* 기사의 직업훈련 예산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예산이며, 본 설명자료에 언급된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임

- 고용노동부는 ▲AI 등 신기술 중심 훈련을 확대(AI 캠퍼스, AI 워커,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등)하고,

- ▲현장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참여 훈련을 확대하며(K-뉴딜 아카데미, K-디지털 트레이닝 등)

- ▲중소기업의 자체 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훈련을 지원하고(S-OJT), 불필요한 절차는 완화(자체훈련 포괄인정제) 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
□ AI 시대, 기술과 직무의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, 원하는 누구나 역량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269)
		담당자	사무관	최어지니 (044-202-7272)

